

현장시선



김명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문 케어와 건강보험료의 가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했을 정도로 우수한 제도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또한 높은 편이다.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건강보험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발생한 전체 의료비 중 64.2%를 건강보험이 부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MRI·초음파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중증·고액 진료비 집합의 보장률은 크게 증가해 백혈병, 림프암, 폐암 등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국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음이 확인됐다.

현재 법적 정부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이나 실제 지원은 약 13.5%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단은 보험재정의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불법·부당청구 근절과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전 마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열린마당

코로나19, 정신건강 귀 기울여야 할 때



오대영 서귀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에 우울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블루가 덧붙여져 코로나블루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됐고, 불안과 분노 감정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하는 레드도 덧붙여져 코로나 레드도 생겨났다.

면 코로나 우울을 경험하는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감이 32.1%로 가장 높았다. 그만큼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유대감이다. 지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화상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족·친구들과 소식을 나누기도 하고, 최근엔 온라인 자조모임과 같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상태를 알리면서 스스로가 지지 체계가 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뉴스-in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적극 동참”

제주도의회 여야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들도 제2공항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 국민의힘 제주도의회 원내대표 오영희 의원은 18일 발표에서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제2공항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갈등의 반목 없도록 조사에 동참하고 제2공항이 추진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

소 대책회의에서 갈등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등을 받고 중점관리대상 선정 등 일종의 일정 중지를 논의.

이 자리에서 안동우 시장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선 의견수렴, 후 정책결정’ 방식으로의 접근을 통해 사전 갈등예방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

제주항공 안전대책 강화

○...제주항공이 18일 최근 발생한 안전 관련 사고에 대해 “항공기 운항과 착륙 후 동체점검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결과”라며 사과하고, 안전대책을 발표. 제주항공은 앞으로 시뮬레이터 추가교육 실시 등 운항 승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각 공항 정비현장 안전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갈등 해소 대책회의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가 2021년 공공갈등 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 회의는 18일 각 국·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본관에서 열린 공공갈등 해

사설

제2공항 갈등 풀 도의회가 서로 싸우니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지현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제2공항을 놓고 찬·반 싸움이 여전히 치열하다. 마치 ‘나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한치와 한치 맞붙여 사후관리 강화 등 지출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확대하고, 정부지원금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급여화 추진과 더불어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비급여에 대한 체계적 관리기전 마련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의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은 “월 지사가 도민의 뜻에 정면 반했는 데도 ‘월비어천가’만 부르고 있다”며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겨냥해 꼬집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발벗고 나선 제2공항 갈등 해소도 마찬가지다. 집행부와 도의회는 물론 도의원끼리도 난타전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다.

코로나에 급증하는 고용 약자, 총력 대처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역경제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자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을 우선 정리하는 현실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고용현실은 어려운 살림을 더 힘들게 하고, 지역경제 침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고, 일용근로자도 2만8000명으로 3000명(10.3%)이나 줄었다. 각 사업장이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감소를 견디지 못해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을 먼저 정리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사회 전반의 고용난과 속에 임시·일용직으로 집중되는 고용충격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된다고 고용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다.

부고 김성현 어머니 연주현씨 영신(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3월 18일 16시 36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발인일시: 2021년 3월 21일(일요일) 오전 6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충혼묘지(제주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연주현씨(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기가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강문창 문종철 문진규 문서진 딸 강경자 경순 사 위 김용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연주현씨 영신(향년 86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리기가 도리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아 들 양일석 보현 딸 양수옥 정순 주희 현미옥 김광자 조윤안 이성훈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골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